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른 진로미결정 이유, 진로성숙도와 대학적응

Reasons for Career Indecisiveness, Career Maturity and College Adaptation Using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조 교 수 백 지 숙*

Dept. of Child Studies, Mokpo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Baik, Jee-Sook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by using the quadrants formed by the decidedness and comfort scale and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career maturity and college adaptation using that typology. We gathered data from a total of 789(237 male, 552 female) students from a middle-sized university in Jollanam-do completed a Career Decision Profile(CDP), a Career Maturity Inventory(CMI) and 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SACQ). We found that 29.5% of students were categorized as decided-comfortable, 36.4% were decided-uncomfortable, 6.9% were undecided-comfortable, and 27.3% were undecided-uncomfortable. ANOVA indica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asons dimension of CDP, career maturity and college adaptation as a function of career decision status categories. In general, decided-comfortable students showed the highest scores while undecided-uncomfortable students showed the lowest scores in all scales. Only in the Career Choice Importance scale did undecided-comfortable students showed the lowest scores.

▲주요어(Key Words) : 진로결정상태 유형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진로미결정 이유(reasons for career indecisiveness)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 대학적응(college adaptation)

I. 서 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은 개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로서, 현대사회에서 진로선택은 개인의 생애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Tolbert(1980)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떤 직업과 진로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발휘의 기회, 인간관계,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관과 태도, 정신 및 신체적 건강, 가족관계, 거주지 등 생활의 모든 측면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되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진로결정의 문제는 학교교육을 마감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준비과정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더욱 절실하고 구체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고향자, 1992). 고등학교에서의 대학입학을 위한 교과목 위주의 교육, 진로지도의 부재, 학생 자신에 대한 깊은 고찰과 평가 없이 진로결정을 대학입학 이후로 미루고 있는 점 등은 대학에서의 진로지도를 더욱 필요로 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이기학·김명원, 1998; 이정근, 1988), 대학에서의 학부제와

* 주 저 자 : 백지숙 (E-mail : jbaik@mokpo.ac.kr)

복수전공제와 같은 학문의 분화와 통합현상,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취업기회의 감소는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대한 고민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각 대학의 상담센터나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재학생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다른 영역보다도 진로문제에 관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려대 학생생활상담센터, 2003; 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 2000; 순천향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7; 연세대 학생상담소, 2001; 원광대학교 학생상담센터, 2000; 이화여대 학생상담센터, 2000; 충남대학교 학생취업 및 생활지원센터, 2004).

이처럼 진로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돕기 위해서는 그들이 진로결정의 과정 속에서 현재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가, 즉 진로결정상태(career decision status)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이혜성·홍혜경, 1998). 진로결정상태란 진로 미결정(career undecided)에서 진로 결정(career decided)의 연장선상에 있는 개념이며, 연구 초기에는 진로 결정 대 미결정의 이분법적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일찍이 Crites(1969)는 진로 미결정을 개인이 구체적 직업을 준비하고 시작하기 위해 특별한 특정 행동의 과정을 선택하거나 그 과정에 관여하는데 있어서의 무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진로 미결정을 부적응적인 것으로 단정 짓고 진로결정자들과 미결정자들의 다른 점을 조사하는 연구가 한동안 많이 이루어졌으나 연구결과들이 혼란을 보이면서 더 이상 이분법적 관점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Larson et al., 1988; Wanberg & Muchinsky, 1992).

즉, 진로결정 집단 혹은 진로미결정 집단이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이질적인 집단으로 개인마다 서로 다른 표현양상과 원인들을 가진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집단이라는 것이다. 이들 집단이 이질적 집단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집단을 구성하는 하위유형을 밝히고, 이들 하위 유형의 서로 다른 특성을 알아내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후 진행되었다(홍혜경, 1997; Fugua et al., 1988; Gordon, 1995; Jones, 1989; Jones & Chenery, 1980; Savickas & Jarjoura, 1991; Slaney, 1988; Wanberg & Muchinsky, 1992).

진로결정상태를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진로결정상태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Jones와 Chenery(1980)가 제시한 진로결정상태 모형(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이 개인의 진로결정상태를 규정할 수 있는 비교적 포괄적이며 명확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Jones와 Chenery(1980)에 따르면, 진로결정상태는 결정성(decidedness), 편안성(comfort), 이유(reasons)의 삼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정성은 진로에 대한 완전한

결정의 지각에서부터 완전한 미결정의 지각에 이르는 연속적인 변인이다. 편안성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결정 상태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감정이 행동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이유는 진로미결정에 대해 개인이 제시하는 설명으로 다시금 네 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뉘어 지는데, 자기 명료성(자신의 장점, 약점, 흥미, 성격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직업과 훈련에 대한 지식(직업과 교육프로그램 대한 정보), 결단성(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진로선택의 중요성(직업을 선택하여 일하는 것이 인생목적에 있어 중요하다고 느끼는 정도)이다.

Jones(1977)는 이들 세 차원을 바탕으로 진로결정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VDS(Vocational Decision Scale)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후에 CDP(Career Decision Profile)(Jones, 1989)로 개정되었다.

Jones와 Chenery(1980)의 진로결정상태 모형을 토대로 하여 Wanberg와 Muchinsky(1992)는 진로결정상태의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Wanberg와 Muchinsky(1992)가 삼차원의 진로결정상태 모형을 이용하여 진로결정상태의 유형을 제시하긴 하였지만, 진로결정상태의 유형을 밝히기 위한 군집분석에는 CDP의 결정성 척도와 이유 척도만 포함되었을 뿐 편안성 척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MVS(My Vocational Situation)의 자아정체감 척도, 상태 및 특성 불안 척도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 통제소재의 IPC (Internal, Powerful Others and Chance), 자아존중감의 JF(Janis Field Feelings of Inadequacy Scale)가 포함되었다.

Wanberg와 Muchinsky(1992)가 CDP의 편안성 척도를 군집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개념상의 문제라기보다는 통계적 이유에서였다고 보인다. 이들은 군집분석을 통해 얻은 진로결정상태 유형의 타당성을 CDP의 편안성 척도를 이용하여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다. 진로 결정시의 편안성은 다른 성격 척도(특히 상태 및 특성 불안 척도)를 통하여 측정되었다. 이들 총 12개의 하위척도를 이용하여 모두 4개의 진로결정상태 유형이 밝혀졌다. '자신있는 결정자(confident decided), 염려하는 결정자(concerned decided), 무관심한 미결정자(indifferent undecided), 불안한 미결정자(anxious undecided) 이었다.

Wanberg와 Muchinsky(1992) 이후, 진로결정상태 유형을 밝히고자 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다. 허자영(1996)은 CDS, CDP, MVS, 불안, 의사결정 유형, 자아존중감을, 배중훈(2001)은 CDP, 불안, 내외통제, 자기효능감, 자아정체감을, 홍혜경(1997)은 CDP와 CDS를, 장선철(2003)은 CDP만을 군집분석하여 진로결정상태를 유형화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유형과 군집분석에 사용한 변

인들, 그리고 군집분석의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Jones와 Chenery(1980)의 삼차원의 진로결정상태 모형을 그 바탕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Wanberg와 Muchinsky(1992)를 비롯한 이들 연구들이 진로결정상태의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각 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진로지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은 매우 훌륭한 일이지만, 이들 연구가 바탕을 둔 진로결정상태 모형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먼저, 진로결정상태 모형의 결정성, 편안성, 이유가 진로결정에 있어 중요한 세 차원임은 틀림없으나, 이들을 동일한 수준의 차원으로 보는 것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즉, 개인의 진로결정상태는 결정성과 편안성의 두 축을 중심으로 정해지며, 이유는 그 하위차원으로 개인의 진로결정상태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제시해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진로결정상태의 유형을 정함에 이유를 결정성, 편안성과 동일한 차원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다소 논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Jones와 Chenery(1980), 그리고 Jones(1989)도 결정성과 편안성을 별도의 차원으로 이유와 분리시켜 개념의 조합에 따라 결정-편안, 결정-불편, 미결정-편안, 미결정-불편의 네 집단으로 진로결정상태의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이 유형들이 현실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록 세 차원의 하위척도들을 모두 이용하긴 하였지만, Wanberg와 Muchinsky(1992)가 밝혀낸 네 유형도 위의 네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 결정성과 편안성을 중심축으로 진로결정상태 유형을 만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

다음 문제로는, 허자영(1996)과 홍혜경(1997)은 여섯 개의 진로결정상태 유형을, 배중훈(2001)과 장선철(2003)은 네 개의 진로결정상태 유형을 제시하였으며 이들 유형은 내용에 있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임으로 안정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진로결정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성격(심리) 변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자마다 자의적으로 서로 다른 성격 변인을 군집분석에 포함하였기 때문이다(장선철, 2003). 둘째,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방법인 군집분석은 선정된 변수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을 집단으로 집단화하여 각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연구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지도 혹은 진로상담을 위해 진로결정상태 유형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진로결정상태 모형의 두 차원인 결정성과 편안성의 조합에 따라 결정-편안, 결정-불편, 미결정-편안, 미결정-불편으로 분류된 유형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이며 현실적으로 유용하리라 여

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을 진로결정상태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의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각 유형에 맞는 차별화된 진로지도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먼저,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해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른 진로미결정 이유의 하위 영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로, 이연미(2002)는 진로를 결정한 대학생보다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대학생들이 진로장애를 더 많이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진로장애는 개인의 진로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내적, 환경적 사건이나 조건(Swanson & Woitke, 1997)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명확성 부족, 직업정보 부족, 흥미부족, 대인관계 어려움, 등을 말한다. 이는 진로미결정 이유의 하위영역과 비슷한 개념이라 여겨지며, 각 유형별로 진로 결정을 어렵게 하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진로성숙도 중요한 개념이다. 진로성숙이란 어떤 개인이 자기에 대하여 판단하고 직업의 세계를 살펴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를 인식하고 이에 따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기와 같은 연령층의 집단과 비교해 볼 때 그 개인이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위치를 의미한다(양문혜, 2002). 진로성숙은 진로발달의 핵심요인으로, 진로선택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개인의 발달정도, 즉 준비도라 할 수 있다(이옥란, 2004; 최진순·손종식, 1994). 따라서 대학생의 직업적 준비의 정도라 할 수 있는 진로성숙도를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각 유형별 진로의 발달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가 대학생의 전반적인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Lunneborg(1976)의 연구에 의하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학업성적이 낮았으며 졸업 후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고 한다. 보다 최근에 이연미(2002)는 진로를 결정한 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대학생보다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직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유사하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지순(2000)의 연구에서도 진로의사결정은 자아개념 하위요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진로의사결정 유형의 합리적 유형은 학업능력 자아개념, 수업자아개념, 학업성취자아개념, 신체자아개념, 가정자아개념, 사회자아개념, 성격자아개념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진로결정이 대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보다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연구가 그 대부분을 이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 유형이 대학생의 대학적응

(학업적응, 정서적응, 사회적응, 대학소속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라 그들의 진로미결정 이유, 진로성숙도와 대학적응(학업적응, 정서적응, 사회적응, 대학소속감)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라 진로미결정 이유의 하위 영역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라 진로성숙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라 대학적응(학업적응, 정서적응, 사회적응, 대학소속감)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남도의 중소도시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789명(남학생 237명, 여학생 552명)이었다. 1학년 학생은 21.5%, 2학년 학생은 44.3%, 3학년 학생은 17.5%, 4학년 학생은 16.7%이었다. 연령별로는 18세 학생은 6.0%, 19세 학생은 23.9%, 20세 학생은 30.1%, 21세 학생은 14.9%, 22세 학생은 10.4%, 23세 학생은 6.4%이었으며, 나머지 8.3%의 학생은 24세~32세이었다. 학생들의 전공은 다양하여 총 11학부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이들 학부 중 생활과학부(39.1%)와 역사문화학부(28.7%)의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학생들은 가정의 경제수준을 대부분 중류(61.4%)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30.5%의 학생은 하류로, 8.1%의 학생은 상류로 인식하고 있었다.

2. 연구도구

1) 진로결정프로파일 (Career Decision Profile: CDP)

진로결정프로파일은 Jones(1989)가 직업결정척도(Vocational Decision Scale)(Jones, 1977)를 수정한 것으로 결정성, 편안성, 이유의 세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유 척도는 다시 자기명확성, 직업과 훈련에 대한 지식, 결단성, 직업선택의 중요성의 4개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진로결정의 확고한 정도를 측정하는 결정성은 2문항, 진로결정에 대한 편안함을 측정하는 편안성은 2문항이며, 이유 척도의 자기명확성은 10문항, 직업과 훈련에 대한 지식은 5

문항, 결단성은 4문항, 직업선택의 중요성은 4문항으로 총 27문항이 번안되어 사용되었다. 이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의 Likert식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결정성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0$, 편안성은 Cronbach's $\alpha=0.73$ 이었으며, 이유는 Cronbach's $\alpha=0.82$ 로 나타났으며, Jones(1989)는 특성불안(trait anxiety)과의 공인타당도를 보여주었다.

2) 진로성숙도 검사 (Career Maturity Inventory: CMI)

본 척도는 Crites(1978)가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를 김현옥(1989)이 우리말로 번안, 수정한 것이다. CMI는 진로성숙도검사도구로 객관적으로 점수화되고 표준화된 진로발달 측정도구로서 최초로 개발된 척도이다(Crites, 1971). 본 척도는 태도척도와 능력척도의 두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진로선택 시 개인이 갖는 성향이나 태도 등을 측정하는 태도척도만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태도척도는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정성, 타협성, 관여성, 독립성, 성향성의 5개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양식은 본래 '그렇다' 혹은 '아니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수정되어 사용되었다. 많은 선행연구들(김남홍, 2001; 김봉환, 1997; 김현옥, 1989; 김형균, 2002)이 본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5$ 이었다.

3) 대학적응척도 (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

대학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Baker와 Siryk(1984)이 제작한 SACQ를 백지숙·도현심·박성연(1998)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SACQ는 학업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 대학소속감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래 총 67문항 중 우리나라 대학문화와 맞지 않는 9문항이 제거되어 58문항으로 구성된다. 학업적응은 대학이 부여하는 교육적 요구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보는 것이고, 사회적응은 대학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인간사회적 관계를 얼마나 잘 형성하고 유지하는가를 보는 것이다. 정서적응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그와 관련된 신체화 증상의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며, 대학소속감은 학생이 자신의 학교에 갖는 소속감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학업적응은 Cronbach's $\alpha=0.77$, 사회적응은 Cronbach's $\alpha=0.78$, 정서적응은 Cronbach's $\alpha=0.80$, 대학소속감은 Cronbach's $\alpha=0.60$ 이었다. 선행연구에서 본 척도는 대학생의 부모애착(백지숙, 2000), 인터넷 게임동기유형(백지숙, 2005)과의 관계를

통해 공인타당도가 입증되었다.

3. 연구절차

자료 수집은 전라남도의 한 대학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문과의 한 학부(세 전공)와 이과의 한 학부(세 전공)를 선정한 뒤, 각 전공의 협조를 받아 강의실에서의 질문지 배부, 수집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다양한 전공생들이 모인 4개의 교양과목 강의실에서 담당 교수의 주관 하에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 조사를 하기 전에, 본 연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학생들에게 제공되었다. 학생들이 질문지 응답에 소요한 시간은 15~20분 이었다. 질문지에 학생의 이름이나 학생번호 등을 기입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의 솔직한 응답을 유도하였으며, 학생들의 질문지 조사 참여는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

4.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에 의해 분석되었다. 조사대상 대학생의 일반적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또한 진로결정상태 네 유형의 빈도가 산출되었다.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른 진로성숙도와 대학적응(학업적응, 정서적응, 사회적응, 대학 소속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는 Duncan의 중다범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진로결정상태 유형

진로결정상태 유형은 진로결정상태 모형의 중요한 두 축인 결정성과 편안성을 중심으로 정해졌다. 결정성은 평균 5.81점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높으면 결정, 낮으면 미결정으로 이분되었으며, 편안성은 평균 4.20점보다 높으면 편안, 낮으면 불편으로 이분되었다. 그 결과 268명(34.1%)의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미결정인 상태였으며 517명(65.9%)의 학생이 결정인 상태였고, 500명(63.6%)의 학생이 자신의 진로결정에 편안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286명(36.4%)의 학생만이 자신의 진로결정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분된 결정성과 편안성을 이용하여, 네 개의 진로결정상태 유형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다: 결정-편안, 결정-불편, 미결정-편안, 미결정-불편. 결정-편안형은 231명(29.5%)이었으며, 결정-불편형은 285명(36.4%)으로 가장 많았다.

		결정성			
		미 결	결 정		
편안성	편안	미결-편안 54(6.9%)	결정-편안 231(29.5%)		
	불편	미결-불편 214(27.3%)	결정-불편 285(36.4%)		

<그림 1> 진로결정상태 네 유형

<표 1>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른 이유의 네 하위영역

진로결정상태유형		N	M	F	Duncan
자기명료성	결 정-편 안	231	27.37	65.91***	a
	결 정-불 편	285	24.41		c
	미결정-편안	54	25.44		b
	미결정-불편	214	22.11		d
직업과 훈련에 대한 지식	결 정-편 안	231	12.03	43.69***	a
	결 정-불 편	285	10.79		b
	미결정-편안	54	12.40		a
	미결정-불편	214	9.94		c
결단성	결 정-편 안	231	11.74	22.96***	a
	결 정-불 편	285	10.88		b
	미결정-편안	54	10.64		b
	미결정-불편	214	10.08		c
진로 선택의 중요성	결 정-편 안	231	13.96	20.83***	ab
	결 정-불 편	285	14.15		a
	미결정-편안	54	12.00		c
	미결정-불편	214	13.56		b

***p<.001

반면, 미결정-편안형은 54명(6.9%)으로 가장 작았으며 미결정-불편형은 214명(27.3%) 이었다(<그림 1>).

한편 <표 1>이 제시하듯,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라 이유의 네 하위영역인 자기명료성($F=65.91, p<.001$), 직업과 훈련에 대한 지식($F=43.69, p<.001$), 결단성($F=22.96, p<.001$), 진로선택의 중요성($F=20.83, p<.001$)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진로선택의 중요성 영역을 제외한 다른 세 영역에서 결정-편안형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미결정-불편형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자기명료성 영역은 네 유형을 가장 잘 변별해주는 영역이었으며,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강할수록 진로를 결정했건, 하지 않았건 자신의 결정에 편안해 하고 있었다. 유사하게, 직업과 훈련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자신의 진로결정상태에 대해 편안해 하고 있었으며, 예상대로 결단성이 있을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편안해 하고 있었다. 진로선택의 중요성 영역에서는 진로선택에 대한 중요성을 느낄수록 자신의 결정에 신중해져서 진로결정을 했다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해 편안해하지 못

하고 있었다. 한편, 미결정-편안형이 진로선택의 중요성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진로선택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할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도 미루고 그에 대해 별 불편도 느끼지 않고 있었다.

2.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른 진로성숙도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2>).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편안한 학생들이 가장 높은 진로성숙도를 보였으며, 비록 그 결정에 편안하지 않더라도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이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학생들은 자신의 미결정에 편안하든, 편안하지 않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른 대학적응

<표 3>은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라 대학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학업적응, 사회적응, 정서적

<표 2>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른 진로성숙도

진로결정상태유형		N	M	F	Duncan
진로 성숙도	결정-편안	231	138.36	49.25***	a
	결정-불편	285	132.94		b
	미결정-편안	54	125.09		c
	미결정-불편	214	126.70		c

*** $p<.001$

<표 3>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른 대학적응

진로결정상태유형		N	M	F	Duncan
학업 적응	결정-편안	231	52.83	24.86***	a
	결정-불편	285	48.80		c
	미결정-편안	54	49.91		b
	미결정-불편	214	47.21		d
사회 적응	결정-편안	231	33.45	8.29***	a
	결정-불편	285	30.97		b
	미결정-편안	54	31.77		b
	미결정-불편	214	31.11		b
정서 적응	결정-편안	231	25.79	7.75***	a
	결정-불편	285	24.17		b
	미결정-편안	54	24.79		ab
	미결정-불편	214	23.95		b
대학 소속감	결정-편안	231	23.40	13.28***	a
	결정-불편	285	21.53		b
	미결정-편안	54	21.75		b
	미결정-불편	214	21.05		b

*** $p<.001$

응, 대학소속감의 모든 영역에서 결정-편안형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미결정-편안형은 정서적응에서는 결정-편안형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학업적응에서는 결정-편안형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두 번째로 높은 적응점수를 보였다. 따라서 대학적응에서 결정정보보다는 편안성이 보다 중요한 변인으로 보여진다. 학업적응에서 네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나머지 적응영역에서는 결정-편안형을 제외한 다른 세 유형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지도는 그들의 진로결정상태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Jones와 Chenery(1980)가 제시한 진로결정상태모형에 따라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를 유형화하고, 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이유, 진로성숙도, 대학적응(학업적응, 정서적응, 사회적응, 대학소속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진로결정상태 유형화를 위해 진로결정상태 모형을 구성하는 결정성과 편안성, 이유의 세 차원을 군집분석 했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결정성과 편안성의 두 축을 중심으로 이들 조합에 따라 네 가지 진로결정상태의 유형을 만들었다.

먼저, 결정성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높으면 결정, 낮으면 미결정으로 이분되었으며, 편안성은 평균보다 높으면 편안, 낮으면 불편으로 이분되었다. 그 결과 65.9%의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결정인 상태였고 34.1%의 학생이 미결정인 상태였으며, 63.6%의 학생이 자신의 진로 결정에 편안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36.4%의 학생만이 자신의 진로결정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 결과는 Jones(1989)의 연구 결과와 비교된다. Jones의 연구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결정을 내린 학생은 63.3%, 결정하지 못한 학생은 36.7%로 본 연구 결과와 매우 유사하였으나, 진로 결정에 대한 편안성에 대해서는 50.2%의 학생이 자신의 결정에 편안해 했으며 49.8%의 학생이 불편해 하여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는 하나, 그 선택에 대해 1/3 정도의 학생만이 확신을 갖고 나머지 2/3 정도의 학생들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급속한 변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구성된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변화와 모호성 그리고 불확실성에 계속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분된 결정성과 편안성을 이용하여, 네 개의 진로결정상태 유형(결정-편안, 결정-불편, 미결정-편안, 미결정-불편)이 만들어졌다. 이들 유형 중, 결정-불편형이 36.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결정-편안형이 29.5%였고, 미결정-불편형은 27.3%였으며, 미결정-안정형이 6.9%로 가장 작았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진로결정상태 유형을 만든 두 축인 결정성과 편안성 이외에, 나머지 진로결정상태 모형을 구성하는 세 번째 차원인 이유의 네 하위영역(자기 명료성, 직업과 훈련에 대한 지식, 결단성, 진로선택의 중요성)에서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유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진로선택의 중요성 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역들에서 결정-편안형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미결정-불편형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자기명료성 영역은 네 유형을 가장 잘 변별해주는 영역이었으며,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강할수록 진로를 결정했건, 하지 않았건 자신의 결정에 편안해 하고 있었다. 유사하게, 직업과 훈련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자신의 결정에 편안해 하고 있었으며, 예상대로 결단성이 있을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진로선택의 중요성 영역에서는 미결정-편안형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진로선택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할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도 미루고 있고 그에 대해 별 불편을 느끼지도 않는 반면, 진로선택에 대한 중요성을 느낄수록 자신의 결정에 신중해져서 진로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해 불편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Cohen, Chartrand와 Jowdy(1995)가 진로 미결정은 다양한 문제와 원인을 지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차별적인 진단을 통해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실제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진단과 차별적인 진로지도의 방향을 설정해볼 수 있다. 먼저, 결정-불편형은 자기명료성과 결단성을 기르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직업과 훈련에 대한 지식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결정-편안형은 결단성도 길러야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진로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미결정-불편형은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유형으로 자기명료성, 결단성을 길러주어야 하며 직업과 훈련에 대한 지식도 가장 많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른 진로성숙도를 살펴본 결과, 자신의 진로결정상태에 편안하든 편안하지 않던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학생보다 더 높은 진로성숙도를 보였다. 이는 진로성숙도와 관련하여서는 결정성이 편안성보다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는 것이

라 하겠다. 이는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방법의 취득과 현실여건을 고려한 직업선택을 할 수 있는 진로결정 능력을 길러 줌으로써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킨 조준환(2004)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로, 진로의사결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중학생(정명숙, 2002), 남자 고등학생(김은희, 2000), 여자 고등학생(신재식, 2003), 대학생(김지영, 2001)의 진로성숙도를 입증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른 대학적응을 살펴 본 결과, 결정-편안형이 모든 대학적응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미결정-편안형은 정서적응에서는 결정-편안형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학업적응에서는 결정-편안형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사회적응과 대학소속감에서는 결정-불편형, 미결정-불편형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정-불편형은 학업적응에서 세 번째의 점수를 보였으며 나머지 세 영역에서는 미결정-편안형, 미결정-불편형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미결정-불편형은 학업적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나머지 세 영역에서는 미결정-편안형, 미결정-불편형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결정-편안형이 대학적응의 네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만족한 학생들이 대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바람직한 진로지도를 통해 결정성과 편안성을 높이게 되면 대학생활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미결정-편안형은 학업적응과 정서적응에서 결정-불편형, 미결정-불편형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기에 대학적응과 관련하여서는 편안성이 결정성보다 중요한 변인으로 보여 진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결정성과 편안성을 중심으로 네 개의 진로결정상태 유형을 만들었으며, 각 유형에 따라 진로미결정에 대해 개인이 제시하는 설명인 이유, 진로성숙도, 대학적응을 살펴보았다. 이유를 통해서 각 유형에 적합한 효율적인 진로지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진로성숙도와 대학적응을 통해 진로결정상태가 대학생의 삶의 여러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진로결정상태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은 추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본 연구는 전라남도 중소도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 그 대상으로 하였다. 졸업 후의 취업기회가 보다 많고 다양한 수도권 및 다른 대도시의 대학생은 다른 진로결정상태를 보일 수 있을 것이기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인다. 더욱이 참여 대학생의

68%의 학생이 인문 계열과 자연계열의 두 학부 6개 전공 소속이었기에 전공 배경이 연구 결과에 주는 영향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진로지도의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진로지도는 학생들의 진로결정상태 유형을 확인한 후, 각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접수일 : 2006년 01월 09일

□ 심사일 : 2006년 01월 26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8월 02일

【참 고 문 헌】

- 고려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2003). 신입생실태조사 2003. 서울: 고려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 고향자(1992).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남홍(2001).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 준비행동의 발달 및 2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 김은희(2000).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한 집단상담이 진로성숙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순(2000). 고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의사결정과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5, 88-107.
- 김지영(2001). 진로의사결정 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능력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현옥(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형균(2002).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성별, 학년별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종훈(2001). 진로미결정 유형별 진로결정 요인과 성격 특성의 차이.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백지숙(2000).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 대학적응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18(1), 127-137.
- 백지숙(2005). 인터넷 게임동기 유형에 따른 대학적응과

- 인터넷 게임중독. *한국아동학회지*, 26(1), 31-46.
- 백지숙 · 도현심 · 박성연(1998). 한국청소년후기개체화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0), 89-102.
-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2000). 2000학년도 학생생활연구소 활동보고. *학생연구*, 34(1).
- 순천향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1997). 대학생 진로의식 비교 분석. *학생생활연구*, 5, 71-113.
- 신재식(2003). 진로상담프로그램이 일반계 여고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양문혜(2002). 담임교사가 실시하는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진로성숙과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세대학교 학생상담소(2001). 2001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연세상담연구*, 17.
- 원광대학교 학생상담센터(2000). 2000학년도 신입생의 특성 연구.
- 이기학 · 김명원(1998).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성격적 특성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9, 277-298.
- 이연미(2002). 대학생의 진로발달 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애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옥란(2004).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및 진로성숙도.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근(1988). *진로지도의 실제*. 서울: 성원사.
- 이혜성 · 홍혜경(1998). 진로결정상태모형에 의한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의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0(1), 143-166.
-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상담센터(2000). 학생상담센터 활동보고. *학생생활연구*, 34.
- 정명숙(2002). 진로의사결정훈련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존감과 불안 및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선철(2003). 대학생의 진로결정 유형화와 개인·인지 변인과의 관계 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준환(2004). 학급단위 진로의사결정 프로그램이 공업계 남자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진승 · 손종식(1994). 상업고등학생의 자기규제 학습수준과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 *학생연구*, 22, 5-38.
- 충남대학교 학생취업 및 생활지원센터(2004). 2003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보고서. *학생생활연구*, 30, 89-124.
- 허자영(1996). 대학생 진로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혜경(1997). *진로결정상태모형에 의한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의 유형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Baker, R. W. & Siryk, B.(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9-189.
- Cohen, C. R. K. Chartrand, J. M. & Jowdy, D. P.(1995).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ndecision subtypes and ego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440-447.
- Crites, J. O.(1969). *Vocational psychology: The study of vocational behavior and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 Crites, J. O.(1971). The maturity of vocational attitudes in adolescence, *Inquiry Series, Monograph No.2*, Washington, D.C. : APGA.
- Crites, J. O.(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Monterey, CA: CBT/McGraw-Hill
- Fugua, D. R., Blum, C. R. & Hartman, B. W.(1988). Empirical support for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career indecisio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 365-373.
- Gordon, V. N.(1995). *The undecided college student*. Illinois: Thomas Books.
- Jones, L. K.(1977). *The Vocational Decision Scale*.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 Jones, L. K.(1989). Measuring a three-dimensional construct of career indecision among college students: A revi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cale-the career decision profi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477-486.
- Jones, L. K. & Chenery, M. F.(1980). Multiple subtypes among vocationally undecided college students: A model and assessment instru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469-477.
- Larson, L. M., Heppner, P. P., Ham, T. & Dugan, K.(1988). Investigating multiple subtypes of career indecision through cluster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439-446.
- Lunneborg, P. W.(1976). Vocational indecision in college gradu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3, 402-404
- Osipow, S. H., Carney, C. G., Winer, J. L., Yanico, B. & Koschier, M.(1976). *The career decision scale*.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Savickas, M. L. & Jarjoura, D.(1991). The career decision

scale as a type indicat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85-90.

Slaney, R. R.(1988). The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In W. B. Walsh & S. H. Osipow (Eds.), *Career decision making*(pp. 32-72). Hillsdale, NJ: Erlbaum.

Swanson, J. L. & Woitke, M. B.(1991).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431-450.

Tolbert, E. L.(1980).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Boston: Houghton.

Wanberg, C. R. & Muchinsky, P. M.(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71-80.